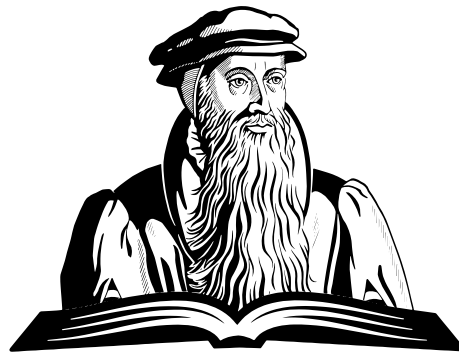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2: 성육신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2

성육신

강의 주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총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강의 스크립트 22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을 때 기대감이 만발하여서 그 약속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할 모든 계획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낸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침내 그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으로 그 보고 싶은 열망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계시를 보내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분이 오시는 것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분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기쁨을 주며 마침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기대와 성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에 대해서 복음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그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요점을 살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구약을 의미하는 예언에서 신약을 의미하는 성취로 혹은 기대에서 성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될 신약에 대한 연구는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표시합니다. 말하자면 그 분은 축인데 이 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돕니다. 사실, 세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축이며, 이세상이 이 축을 통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을 의미하는 B.C.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년 수를 표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A.D.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주님의 해”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아노 도미니 (Anno Domini)에 대한 약어로서 그리스도 이후에 년 수를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의 전체 역사는 이 순간을 가리켰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

고 그 이후의 세상 역사는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과 그분의 오심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저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기대와 성취라는 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둘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구약성경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5:39)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눅24:27, 44)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양한 구약의 인물들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은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유사점을 뽑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구약의 많은 사건들 규례들 그리고 다른 모형들 사이의 관련성들도 끌어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12장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으로서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구리뱀에 대한 언급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광범위한 계시를 생각하면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구약성경을 아는 경건한 신자들을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2:25-26에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찬가지로 같은 장인 누가복음2:37-38에 나오는 안나의 예도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기대가 고조되고 이에 대한 기쁜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신약성경의 초반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이 기대와 성취를 연결시키는지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배적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2:10에서 천사들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 천사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1:12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볼 것을 원하는 것이니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시 누가복음2:13-14을 봅시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성육신 속에 나타난 기대와 기쁨의 성취에 대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다른 하나에 주목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부를 구속하고 취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시편118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25,26절을 보시면 시편118편이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또한 호산나라는 말이 시편118편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찬양의 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21:9에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11장, 누가복음19장, 요한복음12장과 비교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9:9에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

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2:11,12절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21:4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방금 구약에서 읽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와 같이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이 기대가 분명히 성취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구약의 본문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45편은 기뻐하는 왕의 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24편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고 말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고 말합니다. 아가서3장에는 왕을 바라보는 시온의 딸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본문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3장, 시편96편,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성경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12:15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대와 기쁨의 성취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라는 큰 주제를 가진 이사야40장과 “너희는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이사야61:11,12 사이에 있는 연결성도 주목해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한 예로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22:12까지 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어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저는 지금 기대와 그리스도의 오심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의 압도적인 즐거움에 대한 구약의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한 예로서 이렇게 간략한 본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라, 보라”는 요청은 실제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육체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삼위일체의 제 2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심으로 두 구분된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시는 가운데 나타난 낮아짐과 겸비를 말합니다. 소요리문답22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참된 인간의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조직신학을 공부하실 때 이 교리에 관계된 모든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과정에서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간단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1-3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 2위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흥미로운 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8:58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10:30-33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들

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3:14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 이름을 여러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시면 종종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의 “나는...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6:35)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8:12) “나는 양의 문이라” (요10:7,9)고 하셨습니다. 또 그 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요10:11-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15:1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요한복음18:5,6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명사 “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여호와를 가리키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찾아 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12:41을 예로 들면, 이 본문은 이사야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환상을 인용합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가 여호와에 대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호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많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 분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9:35, 30-38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인자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명칭을 다른 어떤 명칭보다 자주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 복음서에서 81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약을 연구했으니까 구약에서 인자라는 명칭은 신성 곧 신적인 영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의미하고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자라는 명칭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인자라는 명칭에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절정에 이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공개적으로 그 분의 신적인 영광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20:28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이 교리를 펼쳐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본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1:14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9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주제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며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 1:15)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1:3)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전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다는 삼중직에 대한 모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최종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1:1이하에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신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7-10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1장이 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다룰 요점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감당하신 사역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제는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죠. 그리스도는 왕국에 대한 선포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4:17은,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1:14,15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왕국의 개념은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왕국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아담이 살았던 에덴동산입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고 성경의 나머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시내산에서 발전된 형태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약속을 통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한 백성에 의해 하나님의 권위가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성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워졌고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다스림과 관계있습니다. 이 왕국은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미래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설교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분의 기적을 통해 나타난 것 못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주장과 그분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왕국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13장을 보시면 그 비유의 모음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왕국을 묘사하신 후에 쪽정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비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비유는 이 왕국이 가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왕국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왕국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반죽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전체 반죽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은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가시적 교회는 이전과 같이 율법 아래서 한 국가로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집이며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일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회개의 필요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인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돌아서는 것이며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

라고 하십니다. 그 분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분은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여러 측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언약적 갱신을 의미하는 신약 혹은 새언약의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왕국과 중보자와 언약이라는 주제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설교 곧 사도들과 현대 교회의 설교에도 적실합니다. 바울은 로마서16:25-27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23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연구하실 때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사도적인 설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5:42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설교해야 할 내용과 핵심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고 높이 들리셔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체 인격과 그분의 전체 사역을 설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디모데전서3:16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 성육신이 등장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총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장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